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 35. 한적한 고도 톨레도에서 자유시간

우리는 꼬마 기차를 타고 소코도베르 광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부터는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관광 버스를 탈 때까지 자유 시간이다. 겨우 두어 시간에 불과했지만 느긋하게 구 시가지를 돌아보기로 했다. 아까 미처 보지 못했던 엘 그레코의 '오르 가즈 백작의 매장' 그림부터 가서 본 다음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돌아보기로 했다.

톨레도 구 시가지의 골목길은 거미줄처럼 얹혀 있다. 중세 시대에 놓은 자갈, 벽돌 길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어 명만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좁았다. 그런 골목길들을 사이에 두고 옛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며 어느 방향에 서나 길을 따라 구비구비 위로 올라가면 꼭대기 소코도베르 광장으로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느 길이건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성 밑으로 갈 수 있게 된다.

R과 내가 지도를 보고 산토 또메 성당으로 다시 찾아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골목길로 자동차가 내려왔다. 그좁은 골목길에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니 우리는 깜짝 놀라 두 팔을 벌리고 길 벽에 맡린 오징어처럼 바짝 붙어 섰다. 그렇게 비키지 않았으면 아마 차에 치었을 것이다. 하얀 세단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유유히 달려 지나갔다.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가는 자동차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마다 가 반대편에서 다른 차가 나타나면 좁은 골목길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한적한 고도 톨레도의 구 시가지는 최대한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시간을 거슬러 중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검은 룽코트를 입고 간 R이 그 곳에서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보니 그대로 패션 화보가 되었다. 겨울 오후의 햇살에 물들어 있는 갈색의 톨레도는 사진에서도 고도의 기품과 정취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산토 또메 성당을 찾아가 '오르 가즈 백작의 매장'을 본 느낌

은 마치 고요히 잠들어 있는 옛 귀인의 묘지를 찾은 것 같았다. 그림은 성당 입구에 걸려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고 돌 난간에서 서서 보게 되어 있었다. 관람객과 그림 사이에 있는 공간에는 겨울인데도 하얀 백합이 가득 놓여 있었다. 흰색과 황금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엘 그레코의 그림과 너무나 잘 어울려서 마치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톨레도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넣어 유명한 이 그림 속에 엘 그레코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그려 넣었다. 나는 그림 속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창백한 얼굴에 눈빛이 형형한 엘 그레코를 찾아 내어 인사를 건네고 마음 속으로 그에게 백합 한 송이를 바쳤다.

톨레도에는 엘 그레코 미술관도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찾았던 월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 날이라 원통한 마음이 들었다. 스페인 중세 고딕 건축의 정수라는 톨레도 대성당도 우리가 찾은 그 시간에 문을 열지 않고 있어서 뒤로 돌아가 유명한 대성당 시계탑만 구경했다. 엘 그레코 미술관과 톨레도 대성당을 보려면 톨레도에 다시 한번 오는 수밖에 없으나 그리움과 회망을 가지고 살다가 멎지 않은 미래에 다시 오기로 마음 먹었다.

톨레도에서 또 한 가지 진귀한 광경은 기독교 성당과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이 벽을 맞대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다. 세 가지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했던 관용적인 중세 톨레도의 흔적이며, 온 유럽의 종교인, 학자, 정치가들이 모여들어 자유롭게 종교와 정치, 문화를 나누고 토론하며 발전시킨 그야말로 깨어 있던 옛 도시의 기억이다. 내려앉기 시작하는 석양에 물들은 갈색 건물들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버스를 타려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언젠가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톨레도 구 시가지의 골목길 한구석에 조그만 창이 있고 그 안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 창안으로 머리핀을 던져 넣으면 훌륭한 신랑을 얻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다큐멘터리는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 창 안에 머리핀, 머리빗 등이 던져져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나는 그 성모 마리아 창을 찾아내 R을 위해 던져 넣으려고 머리핀을 준비해 왔었다. 그런데 그 창문은 결국 찾지 못했다. 그 많은 골목길을 다 뒤지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머리핀을 손에 들고 톨레도의 골목길을 헤매는 엄마에게 R이 애원했다. "엄마! 내 신랑은 내가 잘 찾을게, 이제 그만 내려가자!" 버스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는 포기했다. 다음에 톨레도에 다시 올 때는 그 창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와야지. 나는 호주머니 속에 머리핀을 꼭 쥐며 다짐했다.

## 메디케어 aga 처방약 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2000/yr)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Part B 보조 (\$125/mo.) (\$148.50-\$125 = \$23.50 만 냄)
- ★ Flex Card (\$500), Grocery (\$50/mo), OTC (비처방약커버) 안경, 운동, 침술, 치과, 보청기, 발치료, 교통편제공 해외여행 중 응급치료, 등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로 모든 회사를 취급하며 손님께 맞는 적합한 선택으로 비교해 드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 714-6393** License No. OB07129  
Skim8588@yahoo.com

**땡큐 THANK YOU CHICKEN**

NEW

찜닭	커플사이즈 \$26.99
패밀리사이즈	\$39.99
순살치킨 후라이드/양념/간장 \$19.99	
콤보스페셜	
A	찜닭 + 우동 \$36 \$48
B	찜닭 + 콘치즈 \$36 \$48
C	찜닭 + 모듬튀김 \$39 \$51
D	찜닭 + 오뎅탕 \$42 \$54
E	찜닭 + 순살치킨 \$43 \$55
F	2치킨 \$36 G 3치킨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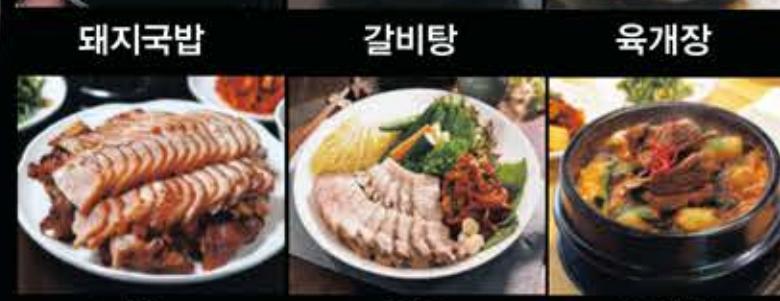
**(714) 278-1090** 화~일 3pm~8pm  
매주 월요일 휴무

2009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3



## TANG

### 순대국 돼지국밥 전문점



설렁탕 / 도가니탕  
감자탕 / 선지해장국  
뚝배기 불고기  
순대접시 / 순대전골  
순대볶음 / 감자탕 전골

설렁탕 육수 판매 \$6.99



### 부에나팍점

Open: 10am~9pm

**714. 266. 0309**

72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 플러튼 본점

Open: 10am~10pm

**714. 680. 9550**

1937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3